

오피니언



새해 아침에

신현림



2011년의 해가 뜨고 있어요. 하루가 덧없이 사라지지만 바람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끝없이 흐르는 생의 찬가를 듣고 싶네요. 하지만, 시민들의 어깨는 예나 지금이나 바위처럼 무거워보입니다. 쉽게 생의 찬가가 쉽게 터져 나오지 않는대요... 시민의 일원인 저부터 먹고 살 걱정이 커서지만, 전부 돈 때문이라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용기와 신나는 세상이 그리울 뿐입니다. "물건을 잃으면 작게 잃는 거야. 신용을 잃으면 크게 잃는 것이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미국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남긴 말인데, 실면서 우리는 상실감은 맞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행복

그래도 푸른 바다 출렁이는 자리를 꿈꾸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동네 마트에 대추레몬차를 만들려고 재료를 사러가려 합니다. 투명하 시간 속에서 한 해 계획을 구상하면서, 그리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고 애절한 것들을 어떻게 맞보며 살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전거를 타며 생활의 소중한 순간에 펼쳐지는 아름다움에 더 크게 감동이 됩니다. 스쳐 지나

가는 바람, 풍경, 함께 있는 사람들. 따뜻한 식사, 겨울 저녁에 내리는 눈을 등에... 저는 서울 중심가에서 자전거로 생활하며 삽니다. 자전거를 안타면 이상할 만치 몸의 일부가 되었지요. 이제 자전거 없는 도시생활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한 시인이 준 선물을 받아 자전거

해가 주범이란 사실을 알 텐데, 사람들은 자가용을 떠나 살 수 없는 이들이 태반일 거예요. 자전거로 생활할 생각은 업두도 못 내지요. 물론 전보다 훨씬 자전거 수요자가 많아진 건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래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서 서울의 공기가 좀 더 숨쉬기가 좋아졌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전거로 인해 감각은 자연을 더 많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기, 햇빛, 바람과 함께 삶이 아주 리드미컬해집니다. 자전거를 탈 때 바람과 닿는 감각이 남달라요. 천연의 향기가 풀꽃 날리는 듯해요. 핸들을 잡고 내리막길을 달릴 땀 마지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거.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내게 딱 맞는 지상의 선물이네요.

서(--) 그래서 저 노을이 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위는 인디언 기도문으로 잠잠히 울고 떠올리려 어둠 속에 잠겨진 것들이 반짝거립니다.

인디언 기도문의 지혜처럼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말들이 천천히 번져가 내 마음에 힘과 지혜의 빛으로 나타나요. 세상의 끝없는 움직임 속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원하였어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아름다운 생의 찬가를 듣고 싶네요

를 타기 시작한 것이 십 년째예요. 8년 되어 낡았지만 꽤 시적입니다. 가슴 아리게 하는 낡은 쓸쓸함, 버려지지 않으려는 정든 냄새가 매력적이지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생활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절약되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지요. 주차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지요. 공해를 안 일으키는 환경제품이라는 점, 지구를 살린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아 좋아요.

두 시간 전에 언젠가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 산과 바다로 떠날 날을 그리워하며 마트를 향해 달렸어요. 내 맘 속에 고향 담아둔 성서와 인디언 기도문을 읊으면서...

인생의 작은 기적들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뺨만으로 살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을 가운데 잡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레도로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젠 세상이 많이 오염되어 불임부부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이예요. 제 주변에도 많답니다. 엄마 아빠가 오염되고, 엄마가 오염되면 아기가 병들어요. 아기가 병들기도 전에 애는 태어나지 못하요. 이제 환경문제는 용기와 대화를 통해 인류가 지켜나가야 가장 큰 과제예요.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환경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문제를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종소비자인 태어나 첫머리 아기가 이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임을 안다면 몸속으로 흘러온 공기, 음식, 물에 의해 이루어진 생명의 피라미드를 살피야 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에 들어 있는 독성 화학물이 태아와 젖먹이 아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절박한 현실입니다.

삶은 부단한 자기 갱신의 나날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자기 삶만이 아니라 지구의 인간생활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천천히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다가 봐요. 심플한 인생을 위한 지상 최고의 물건. 자전거로 생활해보고, 분리 수거도 철저히 하고, 공공건물, 지하철 버스에서 냉난방비 절감하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난방으로 돌리지 않기, 전기, 휴지 아껴쓰기 등등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부러 철저히 실천해나가면 어떨까요. 조금씩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자식들이 제대로 잘 살 겁니다. 대학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그래서 환경의식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모든 것에 스며들어요. 나의 지구환경을 지키려는 생각만큼이나 습관이 미래의 비전을 펼쳐보일 겁니다.

신현림 시인은 ▲경기도 의왕 출생 ▲아주대 국문과, 상명대 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졸업 ▲시집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 ▲사진 에세이 '나의 아름다운 창' ▲미술 에세이 '신현림의 너무 매력적인 현대 미술' '시간창고 가는 길' '내 서른 살은 어디로 갔나' ▲동시집 '초코파이 자전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림 ▲사진작가로 2회의 전시회를 가진.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행복창조도시 광주브랜드 원년을 기대하며



이 무용

2011년 신묘년이 밝았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며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었던 키워드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창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지난해는 행복한 창조도시가 광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된 해이고, 한국창조도시학회가 창립된 해이기도 하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창조도시를 표방해왔지만 아직도 무엇이 창조도시인지, 왜 창조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도시는 어떻게 창조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소통, 합의와 계획은 걸음마 단계인 듯하다. 2011년 신묘년이 행복창조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면서, 5대 창조 브랜드 프로젝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 속의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오월(5·18) 창조 브랜드다. 최초 UN 인권도시 지정, 인본도시자인 구축, 5·18자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추진, 오월길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오월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오월브랜드를 개발하는 통합된 정책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도청 별관 보존 문제도 단순히 전당사업과의 관계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광주의 통합적인 오월브랜드 시스템 속에서 논의되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둘째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광아트(light art)산업 창조 브랜드다. 광주의 전략산업(광산업,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 디자인산업, 전자부품소재산업)과 문화예술을 결합

하여 광주형 창조경제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추진중인 광산업과 예술을 결합한 광아트산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5대 문화콘텐츠인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와 광산업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광아트산업의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빛축제 창조 브랜드다. 현재 광주의 대표축제는 합의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각기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축제들(비엔날레, 김치축제, 월드컵페스티벌, 5·18기념행사, 총장축제, 공연예술제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빛축제(light festival)라는 이름으로 통합이미지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봄에는 사람의 빛축제(오월축제, 광인축제 등), 여름에는 자연의 빛축제(광주천축제, 무등산축제, 푸른길축제, 슬로푸드축제, 예코축제 등), 가을에는 예술의 빛축제(비엔날레, 월드컵페스티벌, 정음성국제음악제, 임방축제, 공연예술제 등), 겨울에는 산업의 빛축제(광아트축제, 전략산업축제 등)로 각각 그룹화하여, 마치 광주에는 하나의 축제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통합적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브랜드링 했으면 한다.

넷째는 행복한 생태공동체 실현을 위한 역사공간 창조 브랜드다.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긴 공간들을 보존·재생·창조하는 창조공간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시민회관, 국군광주병원, 505보안부대, 광주극장, 현대극장, 중앙초

교, 광주여고, 광주기계, 광주교도소, 전남일신방직, 동부소방서, 양립동 역사문화공간, 구도청, 총장로중앙우체국, 광주학생회관, 광주유성, 태봉산, 경양방죽 등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 공간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광주의 근현대 문화유산 공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창조공간 문화지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문화공간들로서 이러한 역사공간들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를 위한 아시아문화 창조 브랜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만이 아니다.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전역에 조성될 예정인 7대 문화권(문화전당권, 아시아전승문화권, 아시아문화교류권, 교육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아시아산과학권, 시가지다문화권)이다. 각각의 문화권이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되고 장소성에 부합되도록 문화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권역의 성격에 걸맞은 시민행복 창조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법에 의거해 2012년에 수정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5대 창조 브랜드가 미디어아트를 테마로 추진 중인 광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대 창조브랜드를 미디어아트로 하나로 엮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남대학교 문화전통대학원 교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극장서 팝콘·음료수 등 바닥에 버리지 말았으면

지난해 성탄절 아이들과 극장에 갔다. 평소 영화 관람을 즐기는 편이라 좋은 영화가 개봉하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극장에 찾는 편이다.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이것저것 군것질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며 극장 내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팥공, 팝콘, 각종 음료수 등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취향이기에 영화관을 보는 옆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너한 지켜나면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영화를 다 본 후의 모습이다. 그날도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에 뭔가 툭 걸리며 넘어지는 게 있었다.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먹다가 남긴 커다란 팝콘 껍과 음료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옆에 앉았던 남녀 커플이 그대

로 바닥에 버리고 갔던 모양이다. 요즘 극장에는 대부분 붉은 카펫이 깔려 있다. 그 위에 팝콘이 떨어지면 극장을 나서려는 사람들의 발길에 무수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치운다 해도 카펫 사이에 남은 팝콘 찌꺼기로 인해 그 속에서 곰팡이가 피면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를 관객들이 들이마시게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극장이나 상영관을 나오면 휴지통이 놓여 있다. 최근에는 관객들의 수고를 덜고자 분리수거도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다. 새해에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매너를 지켰으면 한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無等鼓

경남 양산시가 지역 신문사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산시는 2일(월)부터 최근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각 신문사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기사·광고 등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출입 제한



또 출입 언론사가 사실 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를 하고, 출입기자가 외부에서 금품수수나 부적절한 시정내 부서에 대해 금품이나 무리한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입 금지 및 광고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산시가 이런 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영세 언론사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신문사별 발행부수가 공개된 만큼 이를 근거로 출제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사비비 언론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을 요건으로 취재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하면 자유롭게 취재를 허용했지만 기자의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줄여 언론 통제라는 비판 속에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양산시의 이번 조치는 공인된 기관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등록제와는 다르다. 언론사의 난립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광주·전남 입장에서 양산시의 실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장필수 사회부장bunyo@kwangju.co.kr

종교칼럼

지장



신묘년 새해가 모든 이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 되었습니다. 농부가 봄에 뿌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곡식이 다르듯이, 새해 첫 새벽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의 발에 심어 가꾸느냐에 따라 올 한해의 거두어 들일 성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너무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동근(同根·한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각각의 생명체 들입니다. 모습과 형상과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근 동

동근 동체(同根 同體)의 가르침

최고이며 올바르다고 아우성을 쳐댑니다. 사회는 늘 싸움과 반목, 갈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펼쳐지는 웃지 못할 오지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느님, 부처님, 천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까요? 한국인의 신, 미국의 신, 인도인의 신,

유대인의 신, 기독교인의 신, 불교인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즉 무한한 신성만이 존재 할 뿐입니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는 각자의 종교용어로 하느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천주님이라 부르기도 할 뿐입니다. 부처님, 천주님,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물의 하느님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불교인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이들을 불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사고는 분리되어 있으며 이미 진리의 가르침에서 심판 받 천 리는 떨어진 외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희망의 출발은 동근동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한 운명체임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때 희망의 새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태양에서 빛을 받으며, 한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숨쉬며, 땅에 근원을 두고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하며 살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살려고 하는 생명체임을 인식 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드림 중심사 주지>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for both the newspaper and its English version.